

현대·기아차, 동남아 EV 공략... 그랩에 2.5억弗 투자

〈순수 전기차〉

〈동남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순수 전기차 모빌리티 서비스 협력
그랩 드라이버 차량 호출 서비스
내년부터 현대·기아 전기차 활용
싱가포르 시범... 동남아 확대

현대·기아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카셰어링) 기업 '그랩'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 순수 전기차(EV) 기반의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기아차는 7일 그랩에 2억5000만 달러(약 284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대차가 1억7500만 달러(1990억원), 기아차가 7500만 달러(850억원) 등이다. 지난 1월 현대차가 투자한 2500만달러(284억원)를 합치면 현대·기아차의 총 투자액은 2억7500만 달러(3120억원)에 달한다.

이번 협업은 지난 1월 현대차의 첫 투자 이후 양사가 전기차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하면서 성사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오른쪽)과 그랩 앤서니 탄 설립자 겸 CEO가 6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제공

현대·기아차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그랩의 비즈니스 플랫폼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모델을 활용한 신규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랩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공유경제 분야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한다는 전략이다.

현대·기아차와 그랩은 협력의 첫 단계로 내년부터 그랩 드라이버가 현대·기아

차의 전기차를 활용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싱가포르에서 시작한다. 현대차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내년 초 전기차 모델 200대를 그랩 측에 최초 공급한다. 향후 기아차도 자사의 전기차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3사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충전 인프라, 주행 거리, 운전자 및 탑승객 만족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과 사업성을 타진하고, 이후 전기차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는 그랩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차 드라이버 대상의 유지 및 보수, 금융 등 EV 특화 서비스 개발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모빌리티 서비스에 최적화된 전기차 모델 개발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대·기아차와 그랩은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및 배터리 업체 등 파트너들과 새로운 동맹체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랩은 최근 싱가포르 굴지의 전력 공급업체인 싱가포르파워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급속 충전기 30기를 비롯 2020년까지 충전기 총 1000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 차량 공유경제 시장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모빌리

티 서비스 이용은 약 460만 건으로, 차량 공유서비스 선진시장인 미국의 50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랩은 규모 면에서 중국의 디디, 미국 우버에 이어 글로벌 차량 공유시장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랩은 동남아 8개국 235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누적 25억 건의 운행을 기록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차량공유업체들과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현대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아이오닉EV를 활용한 카셰어링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 카셰어링 업체 레브, 국내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 전문 업체 메슈코리아, 미국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미고, 중국의 라스트 마일 운송수단 배터리 공유 업체 임모터, 호주의 P2P 카셰어링 업체 카넥스트도어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기아차는 국내와 스페인 마드리드에 차량 공유서비스 '위블(WiBLE)'을 선보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앱 다운받고 '더 쇼' 방청 가자

LGU+ 'U+아이돌라이브' 서비스 출시 기념행사 진행

LG유플러스는 'U+아이돌라이브'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영상을 공유하면 공개방송 방청권 등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앱을 내려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추첨을 통해 SBS MTV '더 쇼' 방청권 2매(10명)를 증정한다. 방청권 당첨자는 매주 금요일 17시 U+아이돌라이브 공지사항 페이지 및 개별 공지된다.

또 12월 6일까지 U+아이돌라이브 내 공연 영상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해당 URL을 첨부하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상품권 5만원(1명)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100명) ▲도서문화상품권 5000원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U+아이돌라이브'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500명)을 제공한다.

U+아이돌라이브는 가입 중인 통신사 관계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등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1월 iOS 앱 출시로 아이폰 이용 고객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AI시대, 보안과 함께 윤리 강조돼야"

MS '퓨처 나우' AI 컨퍼런스 사티아 나델라 CEO 기조연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퓨처 나우' 인공지능(AI) 컨퍼런스에서 AI 기술로 창출되는 비즈니스 기회와 이로 인해 동반되는 책임에 대한 AI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7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내외 AI 전문가를 비롯한 고객사 및 관계자 등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AI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을 두 번째로 방문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가 퓨처 나우 AI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나델라 CEO는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도입을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프라이버시, 사이버 보안과 함께 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퓨처 나우 AI 컨퍼런스에서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나델라 CEO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의 모든 조직과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델라 CEO는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양사 간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韓, 미래차 연구개발 위한 亞 허브로"

벤츠 'R&D 코리아센터' 확장
사무실·연구 인력 두 배 확대
자율주행 기술개발 역할 강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한국을 아시아 주요 시장을 위한 연구개발 허브로 조성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7일 서울스퀘어 빌딩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연구개발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 R&D 코리아 센터(이하 R&D 코리아 센터)의 확장 개소식을 진행했다.

R&D 코리아 센터는 2013년 한국을 방문한 현 님러 AG 이사회 의장이자 메르세데스-벤츠 CEO 디터 제체 회장이 발표한 국내 투자 계획 중의 하나로, 2014년 개소했다.

이번 확장 개소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사무실을 두 배 이상 확장하고 연구인력도 올 연말 기준 40여명으로 약 두 배 이상 늘린다.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의 마르쿠스 슈페르 승용부문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총괄 임원은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더욱 활발히



크리스티안 디크만 메르세데스-벤츠 R&D 코리아 센터 상무와 진성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디미트리 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마르쿠스 슈페르 메르세데스-벤츠 본사 승용부문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총괄 임원, 비아트 비르너 주한독일대리대사(왼쪽부터)가 7일 서울스퀘어 빌딩에서 개최된 메르세데스-벤츠 R&D코리아 센터 확장 개소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서울에 위치한 R&D 센터 확장 개소를 적시적소에 진행하게 됐으며 새로운 R&D 센터는 한국 사회의 혁신과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R&D 코리아 센터는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및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커넥티드 카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허브로서 역할을 보다 확대해 갈 예

정이다.

부품 조달에 있어서도 메르세데스-벤츠에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모기업인 님러는 이미 가전 및 자동차 분야에 경쟁력,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많은 한국 업체와 협력을 맺고 차량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지도 데이터 및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공급받아 오고 있다.

지나해 기준 부품 조달 신규 계약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양성운 기자

컴투스, 신작 부재로 3분기 매출 4.7% ↓

해외 매출은 15분기 연속 80%대 인기게임 IP강화, 신작 출시 속도

모바일게임사 컴투스가 신작 부재로 3·4분기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컴투스는 7일 실적발표를 통해 2018년 3분기 매출 1198억원, 영업이익 380억원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23.3% 줄어든 수치다.

다만 해외 매출의 경우 견고한 입지를 보였다. 컴투스는 3분기 매출 중 83%에 해당하는 994억원을 해외에서 달성하며 15분기 연속 해외매출 80%를 넘어섰다. 특히 북미, 유럽 시장의 매출 비중이 50%



을 기록했다.

컴투스는 자사 인기 게임 지식재산권(IP)을 강화하고, 다양한 장르의 기대 신작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머너즈 워'는 글로벌 e스포츠대회(SWC2018)와 전략적 업데이트 및 다양한 글로벌 프로모션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스카이버운드 엔터테인먼트, 편코 등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코믹스, 머천다이징 등의

IP확장을 통해 '서머너즈 워' 브랜드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액티비전의 대작 IP를 활용해 제작 중인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는 글로벌 사전 예약을 시작했으며, 연내 출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컴투스 측은 이날 진행한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는 12월 중순 캐나다와 호주에서 선로딩한 후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출시할 것"이라며 "게임은 글로벌 원블리지만 서버 운영은 권역별로 다르게 해 해당 권역의 성장을 노리는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